



선교소식 및 중보기도제목

한빛교회 선교부



전희승 선교사님 소개

성함 및 가족관계: 전희승, 추정아, 전예슬

선교하는 나라: 마다가스카르

선교 시작 년도: 2001 년

한빛 후원 시작년도: 2015 년

사역 내용: 빈민 구제 사역, 학교/유치원 설립을 통한 문맹 교육 사역, 현지 교회 복음 사역, 화재 및 수해 지역 구제 사역

선교사님 근황 및 인사말

전희승 선교사님은 7 월초부터 5 번의 복부 통증과 구토증세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를 받지 못해, 한국에서 가서 치료를 받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여러 번 항공편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정부가 허락한 에어프랑스편이 연결되어 8 월 16 일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자가 격리 규정으로 선교사님의 복부 통증이 심하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심에도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4 일간 격리 시설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국 의료계 파업으로 병원을 찾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가 격리를 마치자마자 병원을 예비해 주시고 복부 통증의 원인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간 거대 담석이 담도관과 담낭부근까지 자라나 담즙이 통과할 수 없었고, 황달 수치가 6 배가 높아 바로 제거 시술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는 담석의 크기가 크고 담낭에도 결석이 생겨서 2-3 차에 걸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여 한빛교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의 치료를 위해 같이 중보 기도해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한 번의 내시경 시술만을 통해 담석이 잘 분리되고 이제는 식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부터 한국까지 8 번의 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염증 없이 한국에 도착해 치료받게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을 모아 염려와 사랑으로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제목

- ❖ 선교사님께서 남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 ❖ 병간호를 위해 옆에서 도우시는 아내 추정아 사모님 또한 강건하실 수 있기를
- ❖ 선교사님이 부재중이신 가운데 마다가스카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